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자별 문체 분석: 선택적 변이를 중심으로

유 한 내
(한국의국어대)

1. 서론

“출판가에 ‘개츠비 대전’이 일고 있다.”(중앙일보 2013.5.1. 23면) 영화와 뮤지컬이 인기를 끌면서 원작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스크린셀러”(ibid.)현상 때문이다. 올해 새로 출간된 번역본만 15종에 달한다. 각 출판사에서 스타급 번역자를 내세워 새로운 번역본을 출간하자 독자들 사이에는 ‘『위대한 개츠비』, 누구의 번역본으로 읽을 것인가’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 서점의 서평란과 블로그에서 원본과 번역자별 번역본을 발췌·비교하며 누구의 번역이 더 나은지를 평가하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김옥동과 김영하의 번역본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겁다. 영미문학연구회에서 “원문에 대한 첨가나 누락 없이 원문의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살려서 깔끔하게 번역”(영미문학연구회 평가사업단 2005: 134)한 번역본으로 추천받은

김옥동은 2010년 개정판 서문에서 “지난해 말에는 한 작가가 이 작품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판은 ‘번역’이라기보다 차라리 ‘번안’에 가까울 만큼 의역이 심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오역이 눈에 띄었다”(김옥동 옮김 2010: 10)고 지적했다. 김옥동의 의견을 지지하는 독자들은 김영하의 번역본에서 “피츠제럴드가 아니라 김영하가 느껴진다”(중앙SUNDAY 2013.5.19)고 비난한다. 반면 ‘재미없는 소설’이라는 속설에 맞서 피츠제럴드의 변호를 맡겠다는 심정으로 새로운 번역에 착수했다고 역자해설에서 밝힌 소설가 김영하는 등장인물간의 대화도 반말로 옮기는 등 “김영하 특유의 자신만만하고 역동적인 문체”를 사용했고, “『위대한 개츠비』가 재미없다고 던져버린 사람들을 위한 번역본”(ibid.)이라며 그의 번역본을 선호하는 독자층도 두텁다.

‘누구의 번역이 더 훌륭한가’라는 논의와는 별개로, “번역 사실 자체”가 “은폐”(임호경 옮김 2006: 42)되었던 과거에 비하면 한 문학작품을 ‘누구의 번역본으로 읽을 것인가’라는 번역자 중심의 논의는 역자 가시성의 제고 측면에서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더 나아가 번역자의 문체(the style of a translator)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역자 가시성의 제고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번역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텍스트에 필연적으로 자신만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다(Venuti 1995; May 1994; Hermans 1996).

본고에서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본에서 번역자들의 흔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선택적 변이(optional shift)”(Pekkanen 2007: 3)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선택적 변이란 원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형식적 대응이 깨지는 변이 현상 중 언어적 차이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의무적 변이(obligatory shift)”(ibid.)를 제외한 것으로, 번역의 주체인 번역자가 몇 가지 대안 중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자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다. 문체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대안 가운데 선택한 언어적 패턴”(Leech & Short 1981: 39)으로 정의할 때, 선택적 변이가 반복적인 패턴을 보일 경우 번역자의 문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선택적 변이의 예와 분석 방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 선행연구

2.1 번역자의 문체

문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체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하는데, 문체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Leech & Short 1981; Wales 2001; Boase-Beier 2004; Malmkjær 2004; Bosseaux 2007; Parks 2007). 본고에서는 문체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대안 가운데 선택한 언어적 패턴”으로, “문학작품의 문학적 또는 심미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Leech & Short 1981: 39)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문체 번역에 관한 연구는 “원천텍스트의 문체가 번역 텍스트에서 어떻게 해석, 생산, 재창조되고 있는지”(조의연 2012: 197)를 살펴보기 위한 정성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안소현 2004; 한미애 2010; 박옥수 2011; 김순영·이경희 2012). 이는 번역자가 “자신만의 문체를 가져서는 안 되며, 단순히 원작의 문체를 최대한 비슷하게 재생산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Baker 2000: 244)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번역이 창조적인 행위가 아닌 원작의 부산물로 여겨졌기 때문”(ibid.)이다.

그러나 베이커(Baker 2000: 245)는 문체를 “선호되거나 반복되는 언어적 행위의 패턴”이라고 정의하고, 해당 번역자의 번역본으로 이루어진 코퍼스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개별 번역자의 언어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냈다. 이 연구는 원작자의 문체와는 별개로 번역자가 선호하는 언어적 패턴, 즉 개별 번역자의 문체가 존재하며, 이것이 분석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베이커는 번역자의 문체가 원천언어나 원작자의 문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번역자의 번역본을 여러 개 분석하는 대신 같은 원천텍스트를 여러 번역자가 같은 목표언어로 번역한 것을 비교해 작가 및 원천언어라는 변수를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Baker 2000: 261)고 인정한다.

본고에서는 두 번역텍스트가 원천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이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번역자별로 변이가 어떤 특정 패턴을 보이는지를 관찰해 이로부터 번역자의 문체를 파악해보려고 한다. “변이는 번역자가 작품을 ‘변화’

시키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최대한 충실하게 재생산하고 유기적으로 온전하게 전체를 표현하고자 노력할 때 발생”(Popovič 1970: 80)한다. 본고에서는 변이의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원천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이 낮아진다는 이분법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개별 번역자의 언어적 패턴, 즉 번역자의 문체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적 변이의 양상을 살펴보겠다는 것임을 밝혀둔다.

2.2 선택적 변이

변이는 ST의 의미를 목표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말한다. 번역학에서 변이는 등가(equivalence)나 ST와 TT의 유사성(similarity) 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Catford 1965; Toury 1980). 캣포드는 “번역 변이(translation shifts)”를 “원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대응이 깨지는 현상”(Catford 1965: 73)으로 정의하는데, 이와 같은 변이는 다시 “의무적 변이(obligatory shifts)와 선택적 변이(optional shifts)”(Pekkanen 2007: 3)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적 변이는 언어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변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there were several people in the room’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번역자는 ‘there’를 빼고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in the room several people were)’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국어에 ‘there’에 대응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선택적 변이는 이와 같은 의무적 변이가 일어날 때 번역자가 몇 가지 대안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선택적 변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ST: I looked back at my cousin who began to ask me questions in her low, thrilling voice.

TT1: 나는 다시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친척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TT2: 나는 데이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 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TT3: 나는 데이지 쪽으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적 차이로 인한 변이가 발생할 때 번역가는 번역의 주체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몇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변이는 따라서 “표현의 변이(shifts of expression)”(Popović 1970: 81)로도 볼 수 있으며, 특정 변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해당 번역자의 문체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 선택적 변이는 크게 “확대(expansion), 축소(contraction), 순서의 변이(shifts of order)”(Pekkanen 2007: 9)로 나눌 수 있다. 확대는 다시 대체(replacement)와 추가(addition), 축소는 대체(replacement)와 삭제(deletion)로 구분되는데, 그 분류 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선택적 변이의 구분(Pekkanen 2007: 10)

분류		정의	
선택적 변이	확대	확대-대체	원문의 뜻은 유지한 채 길이만 길어지는 경우
		추가	원문에 없던 뜻이 추가되는 경우
	축소	축소-대체	원문의 뜻은 유지한 채 길이만 짧아지는 경우
		삭제	원문의 뜻이 삭제되는 경우
	순서 변이	원문의 뜻은 유지한 채 순서가 변하는 경우	

이제 선택적 변이를 중심으로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자별 문체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3. 번역자별 문체 분석

3.1 데이터와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김옥동 옮김 『위대한 개츠비』(이하 TT1)와 김영하 옮김 『위대한 개츠비』(이하 TT2)를 원천텍스트(이하 ST)와 비교하여 번역사별로 어떤 선

1) 김석희 옮김 (2013) 『위대한 개츠비』, 서울: 열림원. (F. Scott Fitzgerald. 1991. The Great Gatsby,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택적 변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TT1은 초판이 2003년에 출간되었고, TT2는 2009년에 출간되었으나, TT1의 개역본이 2010년에 다시 출간되어 시대적 차이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ST에서 대화문을 제외하고 앞에서 100문장, 가운데 100문장, 마지막 100문장을 발췌하여 TT1, TT2와 병렬 코퍼스를 구축했다. 이는 작품의 약 15%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작품에서의 위치에 따라 변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세 구간으로 나누어 UAM Corpus Tool을 사용해 분석했다.²⁾

3.2 분석결과

분석 결과 확인된 선택적 변이의 양상은 아래 <표2>와 같다. TT1에서는 변이가 총 59회, TT2에서는 총 141회 일어나 TT2가 TT1보다 변이 횟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작품의 앞, 중간, 뒤로 나누어 발췌·분석했으나, 구간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구간별 결과 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기타 변이로는 시제 또는 서법의 변이가 관찰되었으나, 발생 수가 많지 않아 (TT2에서만 4회 발생) 본고에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도록 하겠다. 먼저 주요 변이의 양상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자.

<표2> 선택적 변이

변이	TT1	TT2
확대	33 (55.93%)	43 (30.50%)
축소	8 (13.56%)	65 (46.10%)
순서	18 (30.51%)	29 (20.57%)
기타	0 (0.00%)	4 (2.84%)
총계	59 (100%)	141(100%)

3.2.1 확대

TT1과 TT2의 확대 횟수는 큰 차이가 없으나, TT1에서는 대체와 추가가 비슷하게 일어난 반면 TT2에서는 추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2) 분석에 사용된 scheme은 <부록1>을 참고하라.

수 있다. 이는 TT1에서 일어난 추가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표3〉 확대

확대	TT1	TT2
대체	15 (45.45%)	2 (4.65%)
추가	18 (54.55%)	41 (95.35%)
총계	33 (100%)	43 (100%)

3.2.1.1 확대-대체

확대-대체는 원문의 뜻은 유지한 채 길이만 길어지는 경우다. 확대-대체는 TT2보다 TT1에서 훨씬 많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ST의 단어가 TT에서 구로 길어진 경우이다.

〈표4〉 확대-대체

확대-대체	TT1	TT2
같은 단위	2 (13.33%)	0 (0.00%)
단어->구	12 (80.00%)	2 (100%)
구->절	0 (0.00%)	0 (0.00%)
절->문장	1 (6.67%)	0 (0.00%)
총계	15 (100%)	2 (100%)

확대-대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자.

(2)

ST: ... the shadows of **holly wreaths** ...

TT1: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할리나무 화환**의 그림자

TT2: **성탄 축하장식**의 그림자

(2)에서는 ST의 ‘holly wreath’가 TT1에서 ST보다 길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확대-대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풀어쓰기로 원문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경우 안긴절과 수식

어가 많아지면서 가독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

3.2.1.2 추가

번역자는 ST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다. 단어 추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TT2의 경우 구가 추가된 경우도 약 37%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TT1보다 TT2에서 추가의 발생이 3배 가까이 두드러진다.

〈표5〉 추가

추가	TT1	TT2
단어	16 (88.89%)	26 (63.41%)
구	1 (5.56%)	15 (36.59%)
절	1 (5.56%)	0 (0.00%)
문장	0 (0.00%)	0 (0.00%)
총계	18 (100%)	41 (100%)

추가된 단어의 종류를 살펴보면 부사가 TT1은 9회(56.25%), TT2는 16회(61.54%)로 가장 많았고, 추가된 구 중에서도 부사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3)

ST: there was a sharp line where my ragged lawn ended and the darker, well-kept expanse of his began

TT1: 초라한 우리 집 잔디가 끝나고 색이 짙고 잘 가꾸어진 그의 저택의 잔디가 시작하는 경계선이 아주 뚜렷해 보였다.

TT2: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이** 어수선한 내 쪽 잔디밭과 색이 짙고 잘 관리된 깔끔한 그의 잔디밭 사이에는 **누가 봐도** 선명한 경계가 그어져 있었다.

(3)과 같이 ST에 없던 부사 또는 부사구를 추가하는 예는 TT2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번역자가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원천텍스트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번역자가 ST에 본인이 해석한 내용을 덧붙이면 독자가 묘사되는 상황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게 될 수 있다.

3.2.2 축소

TT2의 축소 횟수는 TT1에 비해 세 배에 달한다. TT1과 TT2 모두 축소-대체와 삭제가 비슷한 비율로 일어났다.

〈표6〉 축소

축소	TT1	TT2
대체	1 (12.50%)	12 (18.46%)
삭제	7 (87.50%)	53 (81.54%)
총계	8 (100%)	65 (100%)

3.2.2.1 축소-대체

축소-대체는 원문의 뜻은 유지한 채 길이만 짧아지는 경우다. 축소-대체는 TT1보다 TT2에서 훨씬 많이 발생했으며, TT2에서는 구를 단어로 대체한 예가 9회 발생했다.

〈표7〉 축소-대체

축소-대체	TT1	TT2
같은 단위	0 (0.00%)	0 (0.00%)
문장->절	1 (100%)	0 (0.00%)
절->구	0 (0.00%)	0 (0.00%)
구->단어	0 (0.00%)	9 (100%)
총계	1 (100%)	12 (100%)

축소-대체의 예는 다음과 같다.

(4)

ST: ...when a young man at the office suggested that we take a house together in a commuting town...

TT1: ...같은 사무실의 한 젊은 친구가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얻어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을 때...

TT2: ...마침 동료가 시내에서 좀 떨어진 통근 가능한 변두리 지역에 집을 하나 얻어 함께 지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왔을 때...

ST의 ‘a young man at the office’는 TT1처럼 ‘같은 사무실의 한 젊은 친구’로 번역할 수도 있고 TT2처럼 ‘동료’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TT2처럼 구를 단어로 대체하는 축소-대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전체적으로 호흡이 짧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3.2.2.2 삭제

번역자는 ST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다. 단어 삭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TT2의 경우 구가 삭제된 경우도 약 26%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TT1보다 TT2에서 삭제의 발생이 6배 가까이 두드러진다.

〈표8〉 삭제

삭제	TT1	TT2
단어	7 (100%)	35 (66.04%)
구	0 (0.00%)	14 (26.42%)
절	0 (0.00%)	4 (7.55%)
문장	0 (0.00%)	0 (0.00%)
총계	7 (100%)	53 (100%)

TT2에서 삭제된 단어의 종류를 살펴보면 부사가 15회(42.86%)로 가장 많았고 구 중에서는 부사구와 동사구가 각 5회(35.71%)로 많았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5)

ST: When I came home to West Egg that night, I was afraid **for a moment** that my house was on fire.

TT1: 그날 밤 웨스트에그의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잠깐이나마** 우리 집에 불이 난 줄 알았다.

TT2: 그날 밤 웨스트에그의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a)** 집에 불이 난 줄 알았다.

TT2의 경우 단어 및 구의 추가가 41회 발생했고, 단어 및 구의 삭제는 29회 발생해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있던 내용을 삭제하는 등 TT1에 비해 ST와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순서

순서의 변이는 아래 <표9>와 같다. ‘SOV’는 한국어의 주어·목적어·동사의 위치가 바뀐 경우, 절은 ST의 절의 순서가 TT에서 바뀐 경우, 부사/부사구는 ST의 부사/부사구의 순서가 TT에서 바뀐 경우를 가리킨다. 순서의 변이 역시 TT1보다 TT2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표9> 순서

순서	TT1	TT2
SOV	1 (5.56%)	3 (10.34%)
절	8 (44.44%)	15 (51.72%)
부사/부사구	9 (5.56%)	11 (37.93%)
총계	18 (100%)	29 (100%)

변이의 횟수가 가장 많았던 절의 순서 변이 예시를 살펴보자.

(6)

ST: ... **though this is the most superficial tag** to express the bizarre and not a little sinister contrast between them.

TT1: ...비록 이렇게 말하면 이상야릇하고 적잖이 불길한 두 지역의 차이점을 **아주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TT2: ...물론 이정도 말로는 두 지역 사이에 흐르는 그 기묘하고도 적잖이 불길한 어떤 차이점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다. **너무 피상적인 꼬리표인 것이다.**

위의 예시에서 TT1과 TT2는 전혀 다른 문체로 읽힌다. 절의 위치를 바꾸고 문장을 나누는 경우 호흡이 짧아지면서 가독성이 높아지지만 ST에서 보여주는 허구적인 세계가 TT에서 다르게 제시되는 효과를 갖는다.

3.3 논의

선택적 변이에 대한 양적 분석이 쌓이면 번역자별로 하나의 뚜렷한 패턴, 즉 ‘번역자의 문체’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아래 <표10>는 각 번역본에서 발생한 선택적 변이의 양적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번역자 문체이다.

<표10> 번역자 문체

구분	김옥동	김영하
변이	변이 발생이 적은 편임. (총 59회)	변이 발생이 많은 편임. (총 141회)
확대 vs. 축소	축소보다 확대가 많음. (33-8=25)	확대보다 축소가 많음. (44-65=-21)
주요 변이	확대-대체 (단어→구)	삭제 (단어와 구)
결론	ST를 비슷하게 따름. 길이가 길어지고 안긴절과 수식절이 많아짐.	ST와의 거리가 있음. 부사의 삭제가 두드러져 호흡이 빠르고 간결함.

김옥동의 경우 김영하에 비해 변이 발생이 적어 비교적 ST를 비슷하게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축소보다 확대가 많이 일어났으며 확대 중에서도 단어를 구로 풀어 쓴다든가 부사를 추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ST를 충실히 설명하려다 보니 변이가 발생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는 긴 문장 속에 안긴절과 수식절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김영하의 경우 비교적 변이 발생이 많아 ST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확대보다는 축소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부사의 삭제로 문장이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경향이 있다. 두 번역본의 출간 시기가 10년 내로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변이 양상의 차이는 시대적 차이에 따른 언어 사용의 변화 때문이 아닌 번역자의 문체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서론에서 소개한 김옥동과 김영하의 『위대한 개츠비』 번역에 대한 대중의 평가와도 일치해 더욱 흥미롭다. 김옥동의 번역본은 원문을 충실하게 따랐으나 끝까지 읽기 힘들다는 평이 있고, 김영하의 번역본은 살아있는 언어로 개츠비를 재해석해 책이 술술 읽히기는 하나 ‘김영하식 개

츠비’ 또는 ‘MSG 첨가 개츠비’라는 평을 받는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자들은 주로 개인 블로그를 통해 문장 몇 개를 발췌해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번역자의 문체를 선택적 변이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 전체 양의 15%를 분석했으나 추후 양을 더 늘려서 분석해보면 훨씬 뚜렷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대화문을 제외한 서술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추후 대화문을 분석해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의 ST에 대한 여러 TT를 비교하는 대신, 베이커의 연구(Baker 2000)와 같이 한 번역자의 여러 번역본을 코퍼스로그 구축하여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번역자는 번역을 통해 고유한 언어, 즉 번역의 문체를 낳는다. 본 연구는 선택적 변이의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자별 문체를 비교했다. 김옥동은 김영하에 비해 변이가 적게 일어났으며 단어를 구로 대체하는 확대가 발생해 문장이 길어지는 문체적 특징을 보였고, 김영하는 김옥동에 비해 변이가 두 배 이상 많이 일어났으며 부사의 삭제가 두드러져 호흡이 빠르고 문장이 간결한 문체적 특징을 보였다.

“번역가의 새로운 ‘문체와 표현’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산출”(임호경 옮김 2006: 107)하기에 같은 ST에서 파생되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TT는 그 나름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세계문학전집의 유행으로 표절번역이 횡행했던, 또 독자들도 번역본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한 작품을 어떤 번역자가 번역했는지, 번역자별로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번역본에서 번역자의 흔적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오역 지적에서 벗어나, 번역자가 번역 시 어떤 선택을 했으며,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번역자의 문체에 대한 연구는 번역텍스트에 드러난 번역자의 흔적을 통해 “저자로서의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조의연 2012: 216)를 이끌어내어 역자 가시성을 높일 뿐 아니라, 창조적인 작업으로서 번역을 재조명해 번역의 지위를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학문적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번역의 주체를 고찰함으로써 번역학의 연구 지평을 확대”(유한내 2013: 115)하고 번역사학(translatOR studies)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순영·이경희 (2012)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번역학연구』 13(1): 33-58.
- 박옥수 (2011) 「한영문학 번역에서 문체의 반영 - 박완서의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분석에 근거해서 -」, 『겨레어문학』 46: 69-95.
- 안소현 (2004) 「문체 번역하기」, 『번역문학』 5: 88-108.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통번역학 연구』 17(4): 101-119.
- 임호경 율김 (2006) 『번역의 윤리』, 서울: 열린책들. (Lawrence Venuti. 2002.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조의연 (2012) 「번역가의 문체선택 연구: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텍스트 비교 분석」, 『번역학연구』 13(5): 197-221.
- 한미애 (2010) 「황순원 소설의 문체번역 가능성」, 『번역학연구』 11(1): 293-310.
- Baker, Mona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 - 266.
- Boase-Beier, Jean (2004) ‘Knowing and Not Knowing: Style, Intention and the Translation of a Holocaust Poem’, *Language and Literature* 13(1): 25-35.
- _____ (2006)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P.

- Bosseaux, Charlotte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 Catford, J.C. (1965)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Oxford: Oxford U. P.
- Hermans, Theo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 Leech, Geoffrey N. and Michael H. Short (1981/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London: Longman.
- Malmkjær, Kristen (2004) ‘Translational Stylistics: Dullcken’s Translations of Hans Christian Anderse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13-24.
- Marco, Josep (2004) ‘Translating Style and Styles of Translating: Henry James and Edgar Allan Poe in Catala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73-90.
- May, Rachel (1994) *The Translator in the Text: On Reading Russian Literature in English*,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 P.
- Parks, Tim (2007) *Translating Style: A Literary Approach to Translation, A Translation Approach to Literature*. Manchester: St. Jerome P.
- Pekkanen, Hilikka (2007) ‘The Duet of the Author and the Translator: Looking at Style through Shifts in Literary Translation’, *New Voices in Translation Studies* 3: 1-18.
- Popovič, Anton (1970) ‘The Concept ‘Shift of Expression’ in Translation Analysis’, in James Holmes (ed) *The Nature of Translation. Essay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iterary Translation*, The Hague & Paris/Bratislava: Mouton/ Slovak Academy of Sciences, 78-87.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ales, Katie (2001) *A Dictionary of Stylistics*, London: Longman.

분석대상 텍스트

ST: Fitzgerald, F. Scott (1991) *The Great Gatsby*, Vol. 1, Cambridge U. P.

- TT1: 김옥동 옮김 (2003/2010) 『위대한 개츠비』, 서울: 민음사. (F. Scott Fitzgerald. 1991. The Great Gatsby, Vol. 1, Cambridge U. P.)
- TT2: 김영하 옮김 (2009) 『위대한 개츠비』, 서울: 문학동네. (F. Scott Fitzgerald. 1991. The Great Gatsby, Vol. 1, Cambridge U. P.)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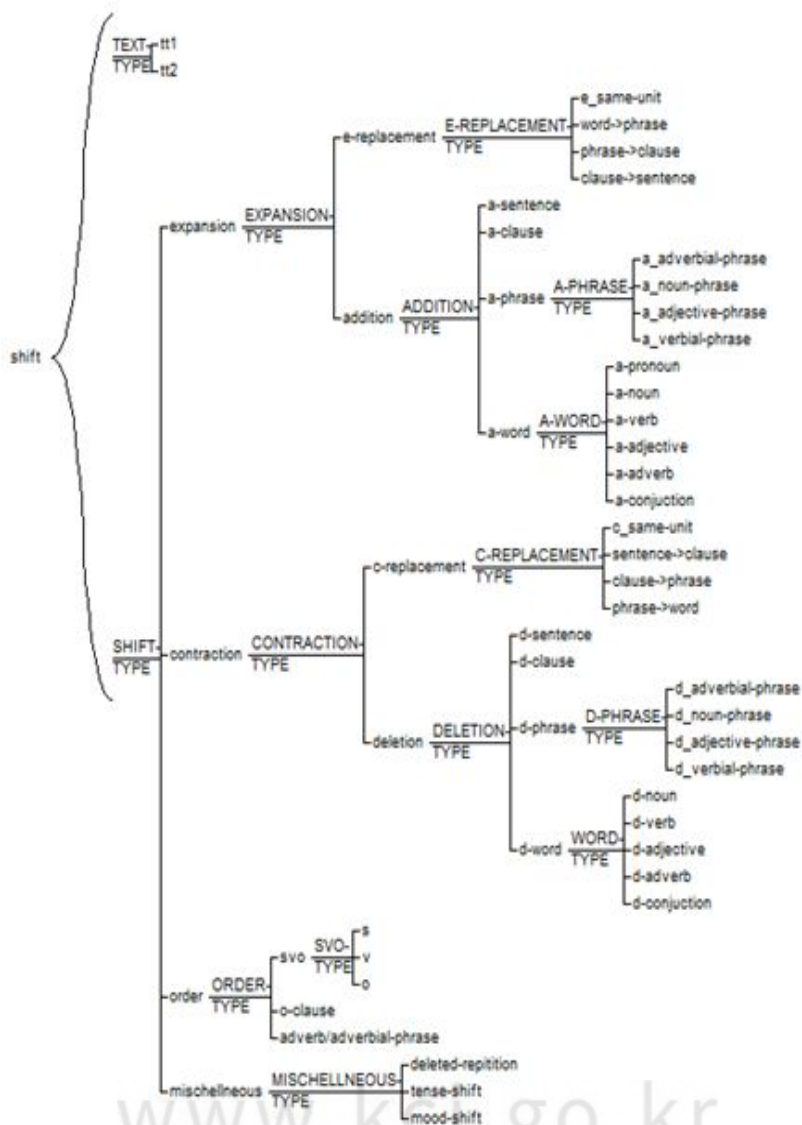
중앙일보 (2013.5.1)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389371&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SUNDAY (2013.5.19)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0185>

〈부록1〉 변이 분석에 사용된 scheme



[Abstract]

**An Analysis of the Translator's Style of *The Great Gatsby*:
Focusing on Optional Shift**

Yu, Han-Na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studies the translator's style by quantitatively analyzing optional translation shifts. Narrative texts of *The Great Gatsby* and two English-Korean translations by Kim, Wook-dong (TT1) and Kim, Young-ha (TT2) were analyzed to identify and categorize recurring patterns of optional translation shifts, which represent the translator's personal translation style. Distinct differences in recurring shift patterns were found between the translators. The tendencies revealed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 that TT2 used more than twice as many shifts as TT1, showing greater distance from the source text than with TT1. TT1 expanded mostly by replacing words with phrases, indicating his tendency to explain more about the source text. This tendency resulted in longer sentences. TT2 deleted mostly adverbs and adverbial phrases, resulting in short and simple sentence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for the research of the style of a translator by quantitatively analyzing optional choices made by the translator, which represent features of the translator's personal style or voice, thus contributing to translator studies.

▶ Key Words: the style of a translator, optional translation shift,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or's voice, translatOR studies

유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박사과정

ambrosia14@gmail.com

관심분야: 번역사의 역할, 번역사학,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14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